

조선어형용사의 뜻빛갈차이와 언어실천

양 목 주

일반적으로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안다는것은 단어들이 나타내는 여러가지 의미들가운데서 그 환경에 꼭 맞는 의미를 선택하여 쓴다는것을 말한다. 그것은 그 환경에 꼭 맞는 정확한 표현을 써야 말하려는 내용이 명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형용사 하나 쓰는것이 간단한것 같지만 잘못 쓰면 일을 망치는 화근으로 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18권 390~391페이지)

조선어에서 형용사의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정확히 가려쓰는것은 언어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형용사는 다른 품사들과 달리 각이한 대상과 사물, 현상들의 성질이나 상태를 정확하게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할수 있는 품사이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의미적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할수 있는 형용사는 수량적으로 많을뿐아니라 또 이 단어들의 규정적기능이 다른 품사들보다 활발하게 쓰이고있다.

조선어의 품사들가운데서 형용사는 다른 품사들로 대신할수 없는 의미의 섬세성과 구체성으로 하여 언어실천에서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하다.

실례로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린다.》라는 문장에서 단어 《밤하늘》에 대한 규정을 다양한 형용사들로 바꾸어주면 이 문장으로 그 대상에 대한 규정의 의미가 서로 각이한 색채를 띠는 다른 문장들로 만들수 있다.

ㄱ.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린다.

ㄴ. 어둡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린다.

ㄴ의 문장에서는 《밤하늘》에 대한 규정형을 형용사 《어둡다》의 《어둡던》으로 함으로써 원래 ㄱ의 문장에는 없는 밝은 빛을 받지 못하여 주위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뜻을 더 보충해준것으로 된다.

또 위의 실례문장에 《어둡다》대신에 그 계열의 형용사들인 《어둑하다, 어둑선하다, 어둑스레하다, 어둑시그레하다, 어둑시근하다, 어스레하다, 어스름하다, 어스럼하다, 어슬핏하다, 어슴푸레하다, 어슬하다, 어숙하다, 어스련하다, 어스렷하다, 어슬하다, 어슬다, 으스름하다, 으스레하다, 으슴푸레하다, 어스무레하다, …》와 《깜깜하다, 컴컴하다, 암흑같다, 먹장같다, 시커멓다, 커멓다, 새까맣다, 까맣다, 칠흑같다, …》와 같은 단어들로 바꾸면 《밤하늘》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적색채가 서로 다른 다양한 문장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어둡다》계열의 형용사들이 나타내는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로 하여 《밤하늘》에 대한 규정적의미가 서로 각이한 문장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즉 뜻비슷한말관계에 있는 형용

사들로는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도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나타내는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규정하는 의미의 미세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조선어의 풍부한 어휘적의미습득의 정확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형용사가 나타내는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가려쓰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첫째로, 하나의 의미적계렬을 이루는 형용사들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것이다.

조선어에서 같은 의미적계렬을 이루는 형용사들에는 크게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리고 일부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뜻비슷한 의미계렬을 이루는 형용사들이 속한다.

우선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의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대상에 맞게 정확히 선택하여 써야 한다.

조선어에는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기본색의 의미를 나타내는 《붉다, 희다, 검다, 누르다, 푸르다》의 5가지가 있다. 이 단어들을 다시 뜻비슷한 의미계렬로 보면 구체적으로 《붉다》계렬의 형용사, 《희다》계렬의 형용사, 《검다》계렬의 형용사, 《누르다》계렬의 형용사, 《푸르다》계렬의 형용사로 세분화할수 있다.

조선어형용사에는 이러한 계렬의 형용사들의 수가 아주 많고 풍부한데 이것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No	계 렬	개수	%
1	《검다》계렬	153	31.29
2	《붉다》계렬	99	20.25
3	《희다》계렬	90	18.4
4	《푸르다》계렬	62	12.68
5	《누르다》계렬	36	7.36
6	혼합색	49	10.02
계		489	100

우의 표에서 보면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그 수가 모두 수백개에 달하고 여기에 혼합색을 나타내는 단어들까지 합치면 거의 500개나 된다.

조선어는 색에 대한 미세하고도 섬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정확히 나타낼수 있는 같은 색깔계렬의 형용사들로 이루어진 어휘적수단이 대단히 풍부하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의 문장에서 이러한 다양하고 풍부한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의 첨가로 그 의미가 아주 세분화된 여러개의 문장을 갈라낼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들가운데서 《검다》계렬의 형용사들의 뜻빛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색갈계렬의 형용사인 《검다》는 말뿌리들인 《감다—검다, 갸다—검다, 가맏다—거맏다》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각이한 덧붙이들이 붙어 검은색갈의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구체적이면서도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게 그 의미가 아주 세분화되어있다.

《검다》의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면 《감다》가 다시 《가맏다, 가무스름하다》로 세분화되고 《가무스름하다》가 《감스럼하다, 감스름하다, 감승하다, 감실하다, 감싯하다, 가무스레하다, 감스레하다, 가마무트름하다, 가마잡잡하다, 가무잡잡하다, 가무뎡뎡하다, 가무대대하다, 가무속속하다, 가무레하다, 가무끄름하다, 가무죽죽하다, 가무칙칙하다, 가무퇴퇴하다, 가무티티하다, 가못가못하다》와 《가못하다, 가무속하다》로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있다.

형용사 《검다》하나에만도 이와 같이 다양하고 풍부한 형용사들이 미세하고도 섬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정확히 나타낼수 있게 의미가 아주 세분화되어있다.

조선어에서 색갈을 나타내는 다른 형용사들도 그 수는 비록 《검다》보다 적지만 같은 색갈계렬의 이러한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정확하게 나타낼수 있게 의미들이 매우 세밀하게 구체화되어있다.

조선어에서 색갈계렬의 형용사들이 색에 대한 미세하고도 섬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나타낼수 있는것은 뒤붙이들의 풍부성에 있다.

조선어에서 색갈계렬의 형용사들에 쓰인 뒤붙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No	계 렬	뒤붙이	개수
1	《검다》계렬	대대, 뎡뎡, 데데, 뎡뎡, 룩, 레, 무트름, 人, 속속, 속속, 승, 스텸, 슸름, 슸레, 시르, 실, 싯, 잡잡, 점점, 죽죽, 죽죽, 직직, 툽, 티, 테테, 퇴퇴, 끄름	27
2	《붉다》계렬	대대, 뎡뎡, 데데, 뎡뎡, 렷, 림, 레, 무레, 미미, 人, 속속, 속속, 슸름, 슸레, 죽죽, 죽죽	17
3	《희다》계렬	밋, ㅂ스레, 번, 벳, 붓, 人, 스무레, 슸, 끄무레, 끄스름, 껌, 푹, 쓱, 여/유/이스름, 읍스름	17
4	《푸르다》계렬	대대, 뎡뎡, 데데, 뎡뎡, 림, 무레, 人, 슸름, 슸레, 죽죽, 죽죽, 껌, 똥, 우리	14
5	《누르다》계렬	ㅂ, 무레, 人, 슸름, 칙칙, 테테, 끄름, 끄레, 끼레, 껌	10
계			85

또한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의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대상에 맞게 정확히 선택하여 써야 한다.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시다, 짜다, 쓰다, 달다, 맵다, 비리다, 아리다》의 7개가 있다.

맛을 나타내는 이 형용사들은 다 자기의 기본의미를 세분화한 계렬을 가지고는 있지만 색갈계렬의 형용사만큼 그 의미의 세분화정도가 구체화되어있지 못하다.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에서 《시다》계렬이 44개, 《달다》계렬이 33개, 《아리다》계렬이 15

개, 《쓰다》계렬과 《비리다》계렬이 각각 14개, 《맵다》계렬이 7개, 《짜다》계렬이 6개로서 모두 100개이상이다.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색깔계렬의 형용사에 비하면 비록 수는 적지만 맛에 대한 구체적인 뜻빛갈의 차이를 정확히 나타낼수 있는것으로 하여 언어실천에서 매우 활발하게 쓰이고있다.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들가운데서 《시다》를 통하여 의미의 세분화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	3	4	5
시다 (44개)	시굼하다	시굼시굼하다		
	시큰/쿤하다	시큰시큰하다		
		시그럽다	새그럽다	
	시그무레하다	시큘하다	시큘시큘하다	
		시금하다	시금시금, 시지근하다	
		시큘하다	시큘시큘, 시크무레, 시척지근하다=시치근하다	
			새척지근=새치근	새지근하다
	시근하다	시근시근하다		
	새근하다	새근새근하다		
	새큰하다	새큰새큰하다		
	새금하다	새금새금하다		
		새그무레하다	새큘하다	새큘새큘하다
			새큘하다	새큘새큘하다
			새큘하다	새큘새큘, 새크무레하다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도 그 의미의 세분화정도가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있는것만큼 색깔계렬의 형용사들과 같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같은 계렬의 단어들을 서로 교체하여 미세하고도 섬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또한 일정한 의미적계렬을 이루면서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의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대상에 맞게 정확히 선택하여 써야 한다.

조선어에서 색깔이나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처럼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뜻 비슷한 의미적계렬을 이루는 형용사들에는 《높다, 짧다, 가늘다, 낮다, 맑다, 밍다, 질다, 크다, 굵다, 길다, 넓다, 작다, 굵다, ...》 등이 있다.

이러한 형용사들도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낼수 있게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을 《굵다, 길다, 넓다, 작다, 높다》를 통하여 보기로 한다.

№	1	2	3	4
1	굽다 (7)	굽다랴다=굽당다		
		굽살하다	굽살스럽다	굽상스럽다
			굽상하다	
2	길다 (58)	기다마하(말)다, 기다다, 기/길다랴다		
		기름하다	기름기름하다, 길썹/쫘하다(1, 2)	
		길죽(쭈)하다	기르스름, 길죽스름, 길죽길죽하다	
		길직(쥌)하다	길지(쥌)막하다	
		길쭉하다(1, 2)		
		가름(르람)하다	갈람, 가름가름, 가르스름, 갈썹하다(1, 2)	
			갈썹하다(1, 2)	갈썹/쥌막하다
		갈쭉하다(1, 2)	갈쭉스름하다	
		갈쭉/쥌하다(1, 2)		
		깎쭉하다(1, 2)		
		개름하다(1, 2)	겉썹/쫘하다(1, 2)	
		깎쭉/쥌하다(1, 2)		
		깎쭉하다(1, 2)		
3	넓다 (38)	너르다	넌(넌)직하다(1, 2)	너랑/평하다
		너랑창=너렁청, 너절청하다		
		넙(넙)다랴다, 넙넙하다		
		넙죽하다(1, 2)	너부죽하다	너부데데, 너붓하다
			넙(넙)주룩하다	
		넙(넙)적하다(1, 2)	너부렁넙적, 넙적스름하다	
		납죽하다(1, 2)	나부죽하다	나뻗뻗하다
			납죽스름하다	
		납작하다	나부(납)대대하다	
나부랑납작, 나부작, 납작스름하다				
4	작다 (12)	자그마하(말)다	작/작달막하다	
			조그마하다	조/죄꼬마하다
		쪼꼬마하(말)다	쪼꼬마하다	
		작다랴다		
5	높다 (6)	높디높다, 높다랴다, 높직하다		
		높낮다, 높푸르다		

우의 표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색깔이나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보다는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일정하게 그 의미가 세분화되어있

다는것을 알수 있다.

ㄷ. 할아버지는 해방을 맞은 첫 가을에 높다란 벼날가리를 쌓아놓았다.

실례문을 《높다》와 비슷한 의미계렬을 이루는 형용사들인 《높디높다, 높직하다》로 바꾸면 그 의미가 문맥에 맞는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 단어들의 의미가 비슷한 의미계렬을 이루지만 자기의 고유한 의미를 가진 뜻빛갈들의 차이가 있기때문이다.

우의 형용사들의 뜻빛갈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형용사	의미
1	높다	《아래에서 우까지의 길이가 길다》 외에 5가지 의미
2	높디높다	더 할수 없는 정도로 높다
3	높직하다	꽤 높다
4	높다랗다	무던히 높다

우의 표를 통해 이 형용사들이 다 《낮다》에 비한 《높다》라는 의미의 공통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일정한 뜻빛갈의 차이가 있는데로부터 우의 문장에서 《높다란》을 《높다》로는 바꿀수 있으나 《높디높다, 높직하다》 등으로는 바꾸어쓸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의미적계렬을 이루는 뜻비슷한 계렬의 형용사들도 대상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에 그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정확히 선택하여 써야 한다.

형용사가 나타내는 미세한 뜻빛갈의 차이를 가려쓰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둘째로, 뜻비슷한말관계에 있는 고유어와 한자어형용사들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것이다.

조선어에는 적지 않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하나의 뜻비슷한말관계를 이루면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형용사들도 적지 않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하나의 뜻비슷한말관계를 이루는 형용사에는 하나의 고유어에 하나의 한자말이 뜻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하나의 한자말에 두개이상의 고유어가 뜻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우선 하나의 고유어에 하나의 한자말이 뜻비슷한말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이 두 단어가 나타내는 그 의미적차이를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

하나의 고유어에 하나의 한자말이 뜻비슷한말관계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에는 《다르다(각이하다), 커다랗다(거대하다), 빠르다(급속하다), 깨끗하다(결백하다), 어렵다(곤난하다), 부지런하다(근면하다), 마땅하다(당연하다), 비슷하다(류사하다), 쌀쌀하다(랭정하다), 끝없다(무한하다), 끊임없다(부단하다), 썩다(부패하다), 넉넉하다(부유하다), 바쁘다(분주하다), 쓸데없다(불필요하다), 기름지다(비옥하다), 잣다(빈번하다), 조그마하다(사소하다), 많다(수다하다), 알맞춤하다(적당하다), 무겁다(중대하다), 넉넉하다(풍족하다), ...》 등이 있다.

이러한 형용사들에서는 될수록이면 고유어를 적극 살려써야 한다.

ㄸ. 사람들의 성격이 서로 다른(각이한) 조건에서 매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짜고들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ㄹ. 철이는 항상 쓸데없는(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기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다 못하여 남들의 말밥에 오르곤 한다.

뜻비슷한말관계에 있는 다른 형용사들인 고유어형용사 《바쁘다》와 한자말형용사 《분

주하다》를 실례들어 보기로 하자.

ㄷ. 소설창작으로 매일 바쁘(분주한) 나날을 보내고있는 그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ㄸ. 옥이는 비가 멎기 바쁘게(분주하게 X) 학교운동장으로 뛰어갔다.

실례문들에서 ㄷ은 고유어형용사 《바쁘다》와 한자말형용사 《분주하다》가 뜻비슷한말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의 교체가 가능하지만 ㄸ에서는 같은 형용사들이지만 다의적의미들 가운데서 일부 의미만이 공통적으로 쓰일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이 단어들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를 통해 알수 있다.

형용사 《바쁘다》와 《분주하다》의 의미는 각각 세가지로 되어있다.

《바쁘다》는 ① 《일이 많거나 급히 해야 할 일로 겨를이 없다.》 ② 《매우 급하다.》, ③ 《(—기 바쁘게)형으로 쓰이어 어떤 일이나 현상이 끝나자 곧》이라는 의미로; 《분주하다》는 ① 《떠들썩하고 수선스럽거나 소란스럽다.》, ② 《몹시 바쁘다.》, ③ 《(동사로 쓰이어)몹시 바빠 달려다니다.》는 의미로 쓰이고있다.

두 형용사가 나타내는 공통뜻은 《할 일이 많아 몹시 급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문장에서 두 단어가 이 공통뜻으로 쓰일 때에는 서로의 교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서로 바꾸어쓸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로부터 고유어형용사와 한자말형용사의 쓰임에서 뜻이 비슷한 일부 경우에는 서로 교체하여 한자말대신에 고유어를 쓸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서로 자기의 의미로 문맥에 맞게 선택하여 써야 한다.

또한 하나의 한자말에 두개의 고유어가 뜻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그 의미적차이를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

뜻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고유어와 한자말형용사들가운데는 하나의 한자말에 하나의 고유어가 의미적으로 대응되는것도 있고 두개의 고유어형용사들이 대응되어 하나의 뜻비슷한말관계를 이루는것도 있다.

하나의 한자말에 두개의 고유어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들에는 《커다랗다, 크다(거대하다), 마땅하다, 뻔하다(당연하다), 썩다, 썩어빠지다(부패하다), 깊다, 커다랗다(심중하다), 무디다, 적다(희박하다), 뚜렷하다, 똑똑하다, 뻔하다(명백하다), …》 등이 있다.

뜻비슷한말관계에 있는 고유어와 한자말가운데서 하나의 한자말에 두개의 고유어로 의미적대응관계를 이루고있다는것은 조선어형용사에는 한자말보다 고유어가 많으며 그 의미 또한 고유어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한자말형용사인 《명백하다》는 고유어형용사인 《똑똑하다, 뻔하다》와 뜻비슷한말관계를 이루면서 쓰이고있다.

ㄹ. 그는 항상 자기 의사를 명백하게(똑똑하게) 표현하였다.

ㅁ. 내가 그를 대신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뻔한) 일이다.

실례문들은 매 단어들이 기본의미로 쓰이였기때문에 교체가 가능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이 단어들도 다의적의미로 쓰일 때에는 한자말형용사보다 고유어형용사가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의미로 쓰인다.

한자말형용사인 《명백하다》는 《더 이렇다 할 여지없이 뚜렷하고 뻔하다》로 그 의미가 하나이지만 고유어형용사들인 《똑똑하다》는 세가지 의미로, 《뻔하다》는 두가지 의미로 쓰

이는것만큼 그 의미의 섬세성은 고유어가 한자말보다 더 풍부하다.

이와 같이 기본의미외에 다른 의미로는 한자말이 고유어를 대신할수 없으므로 고유어와 한자말이 뜻비슷한말관계로 있는 조건에서는 될수록이면 고유어를 적극 살려쓰는것이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하며 조선어의 민족성을 더욱 높여나가는것으로 된다.

앞으로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다양하고 풍부한 뜻비슷한말관계에 있는 조선어형용사들이 나타내는 뜻빛갈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언어실천적인 측면에서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조선어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형용사, 순차, 계열